

대화모임

극우 개신교는 어떻게 기독교를 과잉대표하게 되었는가

2021년 5월 25일(화)
오후 2시 - 5시 30분

대화의 집

서울시 종로구 평창6길 35



www.youtube.com/giyunsil

기윤실 유튜브 / 페이스북 생중계

발제

하상응 교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박성철 교수 교회와사회연구소 대표

논찬


하홍규 교수 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김혜령 교수 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문의

크리스찬아카데미 최고권 연구원 010-5525-5114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윤신일 간사 010-8630-1610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크리스찬아카데미

프로그램

14:00 여는순서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백종국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14:20 발제

하상응 교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박성철 교수(교회와사회연구소 대표)

15:00 논평

하홍규 교수(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김혜령 교수(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15:30 휴식

15:45 대화(대화사회: 권혁률 교수)

알리는 말씀

- 마이크를 이용하실 때, 개인 마스크 혹은 마이크 커버 중 한가지를 자유롭게 사용해주시요.
- 발언을 하실 때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면 회의록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방역지침을 고려하여 모임 후 저녁식사를 마련하지 않았음을 양해 바랍니다.
- 휴식시간에는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참석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박정우 기윤실 본부장, 광운선교회 교목
백종국 기윤실 이사장,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손봉호 기윤실 자문위원장, 서울대 명예교수
신동식 기윤실 본부장, 빛과 소금교회 담임목사
이상민 기윤실 본부장, 법무법인 에셀 대표변호사
정병오 기윤실 공동대표, 오디세이학교 교사
조성돈 기윤실 공동대표, 실천신대원 교수
조혜진 기윤실 본부장, 사회연대은행 과장

크리스찬아카데미

- 박태식 성공회대 교수
배현주 전 부산장신대 교수
안재웅 한국YMCA 전국연맹유지재단 이사장
양권석 성공회대 교수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상철 크리스찬아카데미 원장
채수일 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

미국 백인 복음주의 유권자는 왜 트럼프를 지지하였나?

하상응(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 트럼프의 등장과 포퓰리즘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2016년 선거에서 공화당 트럼프(Donald Trump)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전국 단위 득표수에서는 약 300만 표를 적게 얻었으나 확보한 선거인단의 수가 더 많아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특히 1980년대 중후반 이후 단 한 번도 공화당에게 내 준 적이 없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가 패배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공교롭게도 이 세 주는 자유무역의 확대에 의한 피해(일자리 감소)가 가장 큰 지역들 중의 하나였다. 투표 행태 분석 결과, 이 주에서 2012년 대비 2016년에 고졸 백인들의 투표율이 현저히 높았고, 그들의 대다수가 트럼프 후보를 찍은 것으로 확인되었다.¹⁾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과거의 기득권 세력(고졸 백인 중산층)의 반발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다.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리라는 예측을 공개적으로 밝힌 전문가는 거의 없었지만,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낙후된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 백인 유권자들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고한 연구들은 꽤 많이 출판되었다.²⁾ 이 연구들에서 경고한 내용들이 2016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미국 정치 전면을 장식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포퓰리즘 연구가 시작된다. 포퓰리즘은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연구자들이 중요시하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정의가 가능하다.³⁾

대의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 제도 하의 정치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불만과 분노에 찬 일부 국민들이, 자신들의 입장이 국민 전체의 일반 의지(general will)라는 믿음을 갖고, 자신과 다른 사회 집단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타성에 젖은 기성 정치인 대신 카리스마를 갖춘 정치 신예를 내세워 정치체제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 이념 혹은 정치 운동.⁴⁾

1) "Voter Trends in 2016: A Final Examination." (Nov. 1, 2017,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2) 산업이 쇠락한 지역의 저소득층 백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저작들로는 다음이 있다. Cramer, Katherine J. *The Politics of Resentment: Rural Consciousness in Wisconsin and the Rise of Scott Walk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Hochschild, Arlie Russell. *Strangers in Their Own Land: Anger and Mourning on the American Right*. (New York: The New Press, 2018); Vance, J. D. *Hillbilly Elegy*. (New York: Harper Collins, 2016).

3) 최근 출판된 포퓰리즘 관련 정치학 서적으로는 대표적으로 다음이 있다. Eichengreen, Barry. *The Populist Temptation: Economic Grievance and Political Reaction in the Modern Er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Mudde, Cas, and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Popul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Müller, Jan-Werner. *What is Populism?*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7).

4)

트럼프의 등장과 집권은 위와 같은 포퓰리즘 개념으로 잘 설명된다. 우선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낙후된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 고졸, 백인 개신교 신자들)이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만이 진정한 미국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민자와 소수 인종을 배제한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이들은 진정한 미국을 회복하여 자신들의 영광을 재현하는 과업을 기성 정치인이 아닌, 트럼프라는 정치 신예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포퓰리스트 정치인인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수행한 모든 일들을 뒤집는 정책을 펼친다. 특히 흥미로운 내용이 트럼프의 이민정책에서 확인된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자녀에게 합법적인 체류의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오바마의 행정명령을 무효화 시키고자 하였다. 부시 행정부 때부터 심각하게 논의된, 불법 이민자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법안(The DREAM Act)이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쳐 통과되지 못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불법 이민자 자녀에게 2년 단위로 갱신되는 노동허가증을 발급해 주는 법(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을 행정명령으로 발효시켰다.⁵⁾ DACA는 The DREAM Act와 달리 1.5세 불법 이민자 자녀들에게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부여할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대신 16세 이하일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여 5년 이상 거주한 1.5세 자녀들에게 2년 주기로 연장 가능한 노동허가증을 발급해 주고, 이 증서가 유효한 시기 동안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DACA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냈다.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한 폐지, 시효 만기 후 갱신을 하지 않음으로서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하였으나 결국 시효만기(phase-out)후 DACA를 갱신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소송을 낳았고, 2020년 6월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DACA를 존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Trump v. NAACP(DACA)*).⁶⁾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슬람교도 이민 금지 조치를 취해 미국의 정체성 확보에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2017년 1월 27일)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769)을 통해 시리아 난민들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시키고,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그리고 예멘으로부터의 이민을 실질적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전체 입국 가능한 난민의 수를 연 5만 명으로 줄인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워싱턴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행정명령이 이민을 금지시키는 나라들이 모두 이슬람권 국가들이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특정 종교를 우선시해서는 안된다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배하였고,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일부 이민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수정헌법 5조도 위배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Washington v. Trump*, 2017).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문제에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이 모두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 행정명령이 노골적으로 반이슬람적인 내용은 아니며, 잠재적 이민자들은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헌법 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논리로 맞섰다.

2017년 2월 3일 연방지방법원은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집행을 일시 정지시켰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연방고등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2017년 3월 6일 트럼프 행정부는 수정된 행정명령을 반포하여 기존의 행정명령을 대체한다(Executive

5) The DREAM Act는 The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의 줄임말이다.

6) 하지만 이 판결이 곧 DACA를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할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신 이제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DACA를 무력화하기 위해 해 온 행정절차의 적법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판결이다.

Order 13780). 이번에도 연방지방법원(하와이 소재)이 반이슬람적인 내용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정명령 집행을 일시 정지시킨다. 이에 대응하여 2017년 9월 24일 트럼프 행정부는 이 행정명령을 수정하는 선언을 한다(Proclamation 9645). 여기서 이민이 제약되는 국가들은 차드, 이란, 북한,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예멘으로 수정되었다. 법정 공방이 지속되었고, 결국 2018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이 5대 4로 트럼프 행정부의 수정된 선언이 합헌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마무리가 된다(*Trump v. Hawaii*). 다수 의견을 적은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에 따르면 이 선언에 포함된 7개의 국가 중 5개가 이슬람 국가이고, 그 나라들의 인구는 세계 전체 이슬람교도의 10%도 안 되기 때문에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대신 이민현안에 있어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와 같은 행정명령 혹은 선언을 대통령이 하는 데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⁷⁾

트럼프 행정부의 포퓰리스트적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이 이민정책이지만, 최근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인종문제를 대처하는 방식 역시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2017년 남북전쟁 때 남북연합의 사령관이었던 리(Robert Lee) 장군의 동상을 옮기는 문제를 놓고 극우 백인우월주의자들이 버지니아 주 샬롯빌에서 시위와 폭동을 일으켰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양쪽 다 일리가 있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⁸⁾ 양쪽 중 한 쪽은 명명백백한 인종차별주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백인우월주의 집단을 품는 내집단 중심주의(in-group favoritism)를 공공연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2020년 4월 미네소타에서 공권력의 남용으로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라는 흑인이 사망하는 사건에서 비롯된 일련의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에 대해, 일부 시위대들의 폭력 행위를 부각하면서 제도화된 인종차별에 대한 대응 대신, 법과 질서를 회복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⁹⁾

트럼프의 언론에 대한 태도 역시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신의 발언의 논리적 모순과 약점을 지적하는 기자들을 가짜뉴스 유포자로 몰아세우고, 수시로 자신의 과거 발언을 부인하거나 입장을 뒤집고는 그 책임을 주류 언론에게 돌리는 행위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포퓰리스트로서의 트럼프의 면모는 2016년 5월 유세에 던진 다음의 발언으로 요약된다. “정말로 중요한 일은 국민들을 통합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니깐요(The only important thing is the unification of the people, because the other people don't mean anything).”¹⁰⁾ “국민”과 “다른 사람들”을 쪼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시도는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보이는 전형적인 태도이다.

2. 2020년 대통령 선거 맥락에서의 트럼프

2016년 예상을 뒤엎고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주류의 반란”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한때 미국 사회의 주류였던 시골 지역 거주, 고졸, 개신교 신자, 백인 남성들이 결집하여 소

7) 하지만 현재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발표된 행정명령에 의해 이슬람권 국가로부터 이민자를 받지 않는 조치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8) “Trump Defends Initial Remarks on Charlottesville: Again Blames ‘Both Sides’” (Aug. 15, 2017, New York Times).

9) “What Trump, Biden, and Obama Said About the Death of George Floyd” (May. 29, 2020, New York Times).

10) “Donald Trump’s Use of the Term ‘the People’ Is a Warning Sign” (Jan. 24, 2017, The Guardian).

수 인종, 여성, 밀레니얼 세대,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로 대표되는 민주당 세력(소위 '오바마 연합')에 대항하여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해석이다. 이민자의 유입이 늘고, 젊은 세대가 종교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산업 구조의 변화로 대학 교육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늘 뿐만 아니라 이들이 졸업 후 얻는 직장이 더 이상 중공업 지대에 존재하지 않는 현실은 미국 사회 주류로서의 이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류의 반란"은 사실 "소수의 반란"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16년에 상대적으로 투표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소수인종 유권자들과 젊은 세대 유권자들을 2020년 선거에서 효과적으로 동원하면 민주당에게 승산이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바이든 (Joe Biden) 후보가 1990년대 초중반 이후로 처음으로 애리조나와 조지아에서 민주당에게 승리를 안겨준 사실에 주목한다. 애리조나와 조지아는 주 내 대도시 중심으로 최근 유색인종 유권자와 교육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의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들은 오히려 2016년 근소한 차이로 클린턴 후보가 패배한 미시간, 위스컨신, 펜실베이니아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세 개 주는 흔히 블루월(Blue Wall)이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지역이다. 이 지역 중공업이 쇠락하면서 중산층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백인 유권자들이 2016년 민주당을 버리고 공화당으로 갔는데, 이번에 이들을 다시 민주당으로 불러들이는 데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이야기이다.

2016년과 2020년 출구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블루월에서의 승리가 바이든 후보 당선에 결정적이었다는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바이든 후보가 4년 전에 비해 백인 남성 중산층 고졸 유권자의 지지를 상대적으로 더 받은 반면, 소수 인종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더 지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후보는 2016년 클린턴 후보에 비해 백인 유권자에게서 4%포인트만큼 표를 더 얻은 반면, 유색인종 유권자에게서는 3%포인트만큼 표를 덜 얻었다. 특히 백인 남성 유권자로부터 얻은 바이든 후보의 득표율은 클린턴 후보보다 7%포인트 높았고, 고졸 유권자의 지지도 4%포인트만큼 높았다. 그리고 연 가구소득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에 해당되는 중산층 유권자의 바이든 후보 지지가 2016년 대비 11%포인트나 높아진 반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는 7%포인트나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바이든 후보의 승리는 2016년 러스트 벨트(Rust Belt)에서 트럼프를 찍은 백인 노동자들의 표심을 다시 얻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출구조사 결과는 상대적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소수인종 유권자들의 지지를 꾸준히 확보하여 민주당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생각을 재검토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인구사회학적 변화가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이민자의 유입이 지속된다면 2044년 정도에 미국 내 백인이 인종 소수자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주당(그리고 양식 있는 공화당)의 장기 전략은 과반수를 넘기게 될 비백인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그러나 2020년 바이든 후보의 승리에서 보듯이 시골지역에 살면서 개신교를 믿는, 고졸 백인 유권자들의 도움 없이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2020년 선거에서 패배하기는 하였으나 2016년 대비 1천2백만 표를 더 얻은 트럼프가 2024년 재차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유권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3. 트럼프를 지지하는 복음주의 유권자

현재 미국 정치에서 공화당(혹은 트럼프) 지지자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집단은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white evangelical Protestants)이다.¹¹⁾ 이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지역적으로는 남부 시골 지역에 모여 사는 경향을 보인다. 복음주의 유권자를 경험적으로 구분해 내는 방법에는 합의가 없다. 10년에 한번 수행되는 인구조사에서 교육수준, 소득수준, 인종과 같은 정보는 얻을 수 있으나, 응답자의 종교는 해당 문항이 포함된 적이 없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미국인들의 종교 지형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단도직입적으로 설문 응답자에게 “거듭난(born-again) 기독교 신자” 혹은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지를 물어 복음주의 유권자의 비율을 추정한다. 이 문항에 덧붙여 “성경에 적힌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이 활용될 때도 있다. 다른 방법은 기독교 신자라고 답한 설문 응답자에게 재차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를 묻고,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을 역추적하여 복음주의 유권자의 비율을 파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에 비해 조금 더 번거로운 작업이 요구된다. 종교사회학에서 개인의 종교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 가지 기준인 소속(religious affiliation, belonging), 참여(religious attendance, behaving), 신심(religious belief, believing) 중에서 소속과 신심만을 기준으로 삼아 복음주의자들을 구분한다고 보면 된다.

미국 선거에서 기독교 신자, 특히 개신교 신자가 보수 정당인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유권자의 약 43%를 차지하는 개신교 신자의 60%가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반면, 39%가 바이든 후보를 선택하였다. 한편 전체 유권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천주교 신자의 지지를 더 많이 받은 후보는 바이든 후보였다. 47%의 천주교 신자가 트럼프를, 52%가 바이든을 선택하였다. 전체 유권자의 약 22%를 차지하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선택은 바이든이었다. 31%가 트럼프를, 65%가 바이든을 선택하였다.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유권자로 한정시켜 보면 이들의 정치적 보수 경향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¹²⁾ 백인 복음주의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76%가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를 선택하였다.¹³⁾ 이 수치는 2016년 81% 트럼프 지지, 2012년 78% 롬니(Mitt Romney) 후보 지지, 2008년 74% 맥케인(John McCain) 후보 지지, 그리고 2004년 78% 부시(George W. Bush) 후보 지지와 맞물려 백인 복음주의 유권자들의 일관된 보수정당(공화당) 지지를 확인해 주고 있다.

복음주의 유권자들의 공화당 친화성은 그들의 사회문화 현안들(임신중절 반대, 동성애 반대, 진화론 비판 등)에 대한 입장을 보면 놀랍지 않다. 하지만 그들이 트럼프라는 정치인에게 지지를 보내는 일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2016년 트럼프 후보는 인종차별적인 발언, 여러 여성들과의 스캔

11) 물론 흑인 개신교 신자 혹은 천주교 신자 중에서도 복음주의자들은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의 비율이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작고, 정치 성향 기준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2) Wong, Janelle. (2018). The evangelical vote and race in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Journal of Race, Ethnicity, and Politics*. 3: 81-106.; Margolis, Michele F. (2010). Who wants to make America great again? Understanding evangelical support for Donald Trump. *Politics and Religion*. 13: 89-108; Campbell, David E., James R. G. Kirk, and Geoffrey C. Layman. (2021 forthcoming). Religion and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The enduring divide. *The Forum*.

13) 이 수치는 The Edison Exit Poll의 결과이다. The AP VoteCast Survey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트럼프를 선택한 백인 복음주의 유권자의 비율은 81%라고 한다.

들, 비즈니스 관련 사기 의혹 등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복음주의 신자들이 중요시하는, 윤리 의식을 갖춘 정치 지도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복음주의 유권자들은 1998년 르윈스키(Monica Lewinsky) 스캔들이 터졌을 때 클린턴(Bill Clinton) 행정부의 윤리 의식을 조직적으로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지도자인 돕슨(James Dobson)은 “정직하지 못하고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국가와 세계를 이끌 자격이 안된다”는 주장을 명확히 하면서 경제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부도덕한 지도자인 클린턴을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무색하게, 돕슨은 2016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기이한 행태를 보인다. “트럼프 개인의 과거”보다는 “미국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변명을 하면서, 카리스마 있고 능력있는 지도자인 트럼프를 지지할 것을 호소한 것이다.¹⁴⁾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이 트럼프와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종교 보다는 정치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고, 평균 연령이 높으며, 남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과대대표되어 있는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은 건강보험, 이민, 임신중절, 총기 규제, 환경 등의 정치현안에 있어서 공화당 친화적이다. 이들의 비율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공화당 정치인들은 이들의 기호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개인의 윤리 기준으로 보면 낙제점을 받아 마땅한 트럼프 역시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중 대표적인 작업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이민 정책이다.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의 2/3는 지속적인 이민자의 유입이 미국의 정체성에 위협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주류 개신교 신자의 51%, 천주교 신자의 50%, 흑인 개신교 신자의 30%, 히스패닉계 개신교 신자의 29%,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의 22%가 이민으로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반이민정서를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⁵⁾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공화당과 그 정당 소속 정치인을 지지하는 행위는 미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기독교 민족주의(Christian nationalism)”의 발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복음주의 유권자들의 정치관에는 최근 미국 사회 변화에 기인한 “지위 위협(status threat)”이 반영되어 있다.¹⁶⁾

4. 복음주의 유권자들이 느끼는 “지위 위협”

지위 위협은 한때 미국의 주류였던 백인, 개신교, 고졸, 시골지역 거주자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 따라 나타나는 심리적인 반응이라고 알려져 있다. 현재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해 보면 지위 위협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집단이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2018년과 2019년에 수행된 전화 설문 결과를 보면 약 65%의 미국인이 자신을 “기독교인(Christian)”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는 2009년에서 확인된 77%보다 무려 12%포인트나 낮아진 수치이다. 반면 자신을 “무신론자(atheist)”, “불가지론자(agnostic)”, 혹은 “특별한 종교 없음(no religion)”이라고 답하는 비율은 2009년에 17%였으나 2019년에는 26%로 늘어났다. 기독교인의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은 개신교(Protestant)와 천주교(Catholic)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현재 미국 내 개신교도의 비율은 43%이다. 2009년에는 그 비율이 51%였다. 마찬가지로 2019년 현재 천주교도의 비율은 20%인데, 이는 2009년 23%

14) Miller, Daniel D. (2019). The mystery of evangelical Trump support? *Constellations*, 26: 43-58.

15) “A nation of immigrants? Diverging perceptions of immigrants increasingly making partisan divides”. (March 12, 2020, PRRI).

16) Mutz, Diana C. (2018). “Status Threat, Not Economic Hardship, Explains the 2016 Presidential Vot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5(19), E4330-E4339.

에 비해 3%포인트가 줄어든 수치이다. 반면 무신론자의 비율은 2009년 2%에서 2019년 4%로 두 배 증가하였고, 불가지론자의 비율은 3%에서 5%로 증가하였으며 특별한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미국인의 비율은 12%에서 17%로 증가하였다. 동시에 기독교 외의 종교를 믿는 사람의 비율은 다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이끈 주된 원동력은 세대(generation)와 정당 지지(partisan affiliation)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침묵의 세대(the silent generation)라고 칭해지는, 1928년에서 1945년에 출생한 미국인의 경우 2009년 대비 2019년에 2%포인트만큼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1%포인트 정도 종교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 늘었다. (그래서 2019년 현재 침묵의 세대 내 기독교 신자의 비율은 84%, 종교가 없는 사람의 비율은 10%이다.) 하지만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Millennials)의 경우 무려 개신교 신자의 비율이 16%포인트나 감소하는 동시에, 종교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 13%포인트 증가한다. 2019년 현재 밀레니얼 세대 내 기독교 신자의 비율은 49%이고 종교가 없는 사람의 비율은 40%이다. 한편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중에서 기독교 신자의 비율은 7%포인트 감소한 것에 비해,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중에서 기독교 신자의 비율은 무려 17%포인트나 감소한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6%포인트 늘었고,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의 비율은 14%포인트 늘어났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제외하고 얼마나 자주 종교집회에 참석하는지는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패턴 역시 많이 변화하였다. 한 달에 한번 이상이라고 답하는 사람의 비율은 2009년 52%였지만 2019년 45%로 줄어든다. 반면 일 년에 두세 번이라고 답하는 미국인의 비율은 2009년 45%였다가 2019년 54%로 늘어난다. 여기서도 세대 간 차이가 두드러진다. 종교집회에 매주 한번 이상 참석한다는 사람의 비율이 침묵의 세대에서는 50%, 베이비부머 세대(1946-1964년 생)에서는 35%, X세대(1965-1980년 생)에서는 32%,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22%이다. 한편 전혀 종교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각 세대로 12%, 14%, 15%, 그리고 22%인 상황이다. 하지만 기독교 신자로만 한정해 볼 때 2009년 대비 2019년에 종교집회 참석률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2009년 기독교인의 약 46%가 매주 한번 이상, 17%가 한 달에 한두번 종교집회에 참석한다고 하였는데, 그 비율이 2019년에는 각각 44%와 18%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성인 중에서 "거듭난" 혹은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9년 28%에서 2019년 25%로 약간 떨어졌다. 하지만 개신교 신자 중에서 거듭난 혹은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9년 56%에서 2019년 59%로 오히려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백인들로 한정시켜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성인 중에서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의 비율은 2009년 19%에서 2019년 16%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백인 개신교 신자 중에서 복음주의의 비율은 53%에서 56%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현재 미국 복음주의를 이끄는 집단이 백인 개신교 신자임을 확인시켜 준다.

5.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의 저항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 집권기에 가속화된 사회 문화 차원의 진보적 움직임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Obergefell v. Hodges*)로 동성간 결혼이 수정헌법 제 14조의 동등한 대우 조항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 전까지 주

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동성 간 결혼의 합법화 문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합헌 판결로 일단락된다. 이에 미국 전역에서 동성 간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가 법적으로 존중받게 되었다. 하지만 동성 간 결혼 합헌 판결이 모든 미국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다. 사회 현안들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띠고 있는 개신교 근본주의 신자들을 중심으로 동성간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움직임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볼 때 동성간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들은 이 현안을 중심으로 동원되어 한때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성간 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안(Proposition 8, 2008), 합법적인 결혼은 남성과 여성 간에만 가능함을 못 박는 연방법(Defense of Marriage Act, 1996)의 제정에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은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진보 아젠다 때문에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수정헌법 제 1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이 첨예하게 드러난 예를 2018년 연방대법원 판결(*Masterpiece Cakeshop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결혼을 앞둔 동성 커플이 결혼식 케이크를 맞추기 위해 입소문이 자자한 한 제빵점을 방문하였는데, 제빵점 주인이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에서 비롯된 소송이다. 동성 커플의 입장은 제빵점 주인이 수정헌법 제 14조에 명시된 동등한 대우 원리를 위반하여 자신들을 차별 했다는 것이다. 한편 제빵점 주인은 수정헌법 제 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동성 커플 간 결혼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동성 커플이 의뢰한 물품을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제빵점 말고 다른 업체가 많고, 시장에서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합의 하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빵사인 자신이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할 자유가 침해받아서 안된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제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합헌 판결이 난 동성 간 결혼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상거래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권리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제빵사의 행위가 연방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결정이다.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한 반론은 만만치 않다. 만약 연방대법원의 결정대로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성소수자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회 내에 만연한 제도적 차별을 묵인하는 셈이 된다. 미국 전체 인구의 약 25% 정도 되는 개신교 복음주의자들 중에서 자영업자들이 성소수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성소수자의 삶에 큰 불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이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선거를 넘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로비로 이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밖에 안 되는 임기 중 총 9명 중 3명의 연방대법원 판사를 지명하는 행운을 누렸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고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연방대법관들이 모두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기 때문에, 현재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6명의 보수적 판사와 3명의 진보적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연방사법부가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로 대표되는 보수 진영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확인시켜 주는 사건들이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 정책 관련하여 일어났다. 2020년 11월 25일 연방대법원은 효과적인 방역을 목적으로 종교집회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 주지사 쿠오모(Andrew Cuomo)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래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나 드물지 않게 중도적 입장을 취해온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대법관들의 편에 서고, 나머지 5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 의견을 제시해 만들어진 5 대 4 판결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2020년 5월 캘리포니아 주의 방역 지침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소송에서는 연방대법원이 5 대 4로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이다. 5월 판결과 11월 판결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 이유는 연방대법원 법관의 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5월 판결은 진보 성향의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대법관이 아직 살아있었던 때 내려졌던 반면, 11월 판결은 9월에 사망한 긴즈버그 대법관 자리에 새롭게 임명된 보수 성향의 배럿(Amy Coney Barrett) 대법관이 연방대법원에 들어와 있는 때 내려진 판결이었던 것이다. 11월 판결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본 반면, 5월 판결은 방역을 위해 모든 사람들의 동등하게 주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국가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본 차이가 있다.

5. 나가며

미국은 18세기 말 건국 이후 백인, 개신교인이 주류를 형성해 왔던 나라이다. 물론 미국연방헌법이 노골적으로 백인우월주의를 내세우거나 개신교를 국교로 삼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정치문화가 이들의 주도로 만들어지고 유지되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전국 단위에서 70% 이상을 확고하게 유지해 왔던 백인 인구의 비율이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해 줄어들어왔다. 특히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의 비율이 높은 주들(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네바다 등)을 보면 주 단위에서 백인이 소수 인종이 될 날이 멀지 않다는 예상까지 있을 정도로 인구 구조의 변화가 빠르다.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개신교 신자의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과도 맞물려 있다. 대부분의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은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이다.¹⁷⁾

한편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확산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켰다. 한때 제조업의 중심지로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가능했던 공장지대는 점점 쇠락하고, 서부와 동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이, 기후가 온화한 지역을 중심으로 은퇴한 중상류층을 위한 서비스업이 발달하는 현상이 수십 년간 유지되어 왔다. 농업과 중공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가진 주들은 인구가 줄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정치제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수는 10년마다 수행되는 인구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된다. 전체 435명의 연방하원의원을 각 주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쇠락한 중공업 지대를 품은 주들은 연방하원에서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¹⁸⁾ 결국 경제적으로 쇠락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가 어려워진다.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은 한때 미국의 주류였던 사람들이다. 번영을 누렸으나 이제는 낙후된 중공업 지대에 사는,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종교적 신심이 강한, 저소득층 백인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의 불만에 대해 주류 정치인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주술만을 반복하였다. 이들은 자유무역으로 부가 축적되면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s)로 인해 결국 모든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개선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이민자들에게 돌리면 이민자를 포용하지 못하고 차별하는 행위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는 비난을 들었다.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진화론에 의구심을 표명하거나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기도 시간을 주었으면 한다고 말하면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교육수준이 높은, 서부 혹은

17) “The Relentless Shrinking of Trump’s Base” (Oct. 22, 2020, New York Times); “In U.S., Decline of Christianity Continues at Rapid Speed” (Oct. 17, 2019, Pew Research Center).

18)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의 연방하원의원 수는 199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21명이었는데 2000년 인구조사 결과 19명, 그리고 2010년 인구조사 결과 18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마찬가지로 오하이오의 연방하원의원 수도 지난 20년 동안 19명에서 16명으로 줄었고, 미시간의 경우 16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동부 해안가에 사는 지식인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거나, 건강을 위해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 유기농 식품을 소비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일상생활까지 참견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이러한 불만들은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폭발하게 된다.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이 트럼프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지위 위협”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집단이 바로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이기 때문이다. 2020년 현재 행정부와 입법부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정치적 움직임은 한동안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2022년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이들이 다시 미국 정치의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22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하원을 5석을 빼앗아 오거나 연방상원에서 1석을 빼앗아 오면 각각 하원과 상원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중간선거 결과의 평균적인 추세를 고려해 보면 2022년 의회 다수당이 공화당이 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렇게 되면 이미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의 영향력이 강한 연방사법부와 공조하여 임신중절, 동성애, 이민, 공공 교육기관에서의 종교 교육 등과 관련하여 현상타파를 꾀할 것이다. 이 맥락에서 한때 미국의 주류를 대표하던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에게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의미의 “Make America Great Again” 구호가 2024년에 다시 등장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보수 교회의 극우화에 대한 복음주의적 진단과 대응

박성철 목사(교회와사회연구소 대표)

I. 들어가는 말

21세기 들어 다양한 종교 병리학적 증상들로 인해 시민사회영역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였던 한국교회는 2020년의 COVID-19 사태와 21대 총선을 지나면서 한국 사회의 공론장(Öffentlichkeit)을 왜곡하는 주요한 위협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극단주의 정치세력과 결탁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극우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를 찬양하며 교회의 정치화를 촉진하였다. 물론 제주4·3사건과 서북청년회의 비극에서 알 수 있듯이 광복 이후 한국 사회에서 근본주의자들과 극단주의 정치세력과의 결합은 종종 발생하였다.¹⁾ 하지만 80년대까지 근본주의자들은 내적으로 개발독재세력과 결탁을 했을지언정 외적으로 엄격한 정교분리(政教分離)를 외쳤다. 이들의 직접적인 정치세력화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군사독재정권이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87년 체제의 등장과 함께 군사독재세력이 점차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자 근본주의자들은 90년대부터 '뉴라이트(New Right) 운동과 결합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였다. 근본주의자들의 정치세력화는 2016년의 '촛불집회'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면서 본격화되었다. 더 이상 정치적 영역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찾지 못한 근본주의자들은 전광훈을 내세워 직접적으로 공론장을 왜곡하기 시작했고 태극기집회와 같은 극단주의 세력과 결탁하여 사회적 헤게모니에 다가가려 하였다. 그 결과 근본주의자들이 주도했던 기독교 정치운동은 팬데믹(pandemic)의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에 함몰되어 급속도로 극우화되었고 2020년 한 해 동안 한국 사회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팬데믹이 인간의 가장 이기적이고 근원적인 욕망을 자극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고리를 끊고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한국교회의 병리학적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독교 근본주의가 정치적 영역에서 극단주의와 쉽게 결탁하는 현상은 한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20세기 후반 미국 내 근본주의자들은 복음화를 위한 도구로서 텔레비전을 주로 사용하면서 정치영역에서 "기독교 우파"(Christian rights)로서 목소리를 내었다.²⁾ 또한 근본주의자들은 공적 영역에서 극단주의자들과 유사한 의제들(agendas)에 관심을 보였다.³⁾ 이는 근본주의와 극우 이데올로기가 유사한 내적 기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⁴⁾ 하지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2020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매수 보수"라고 대답한 이들은 불과 4.3%에 불과하며 "약간 보수"라고 대답한 24.5%에 비해 "약간 진보"라고 대답한 비율은 29.5%로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⁵⁾ "중도"라고 대답한 39.8%의 이념적 불명확성을 감안하더라도 극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개신교인을 과잉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1) 강성호, 『한국기독교 흑역사』 (서울: 짓다, 2016), 110-113.

2) "Fundamentalism, Christian," *Britannica Concise Encyclopedia*,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New York: Encyclopedia Britannica Inc, 2006), 721.

3) Davidson Loehr, *America Fascism and God: Sermons from a Heretical Preacher* (White River Junction: Chelsea Green Publishing Company, 2005), 40.

4) Charles A. Kimball, *When Religion becomes Evil: Five Warning Signs*, revised and updated edition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2008), 215.

5)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20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20), 9-10.

1962년 위르겐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경』(*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에서도 잘 드러나는 바와 같이 공론장의 왜곡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 대응의 첫 걸음은 왜곡을 시도하는 집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한국교회 내 극우적인 정치세력과 결탁한 근본주의자들의 과잉대표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신학적 분석뿐 아니라 사회학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본 글은 먼저 기독교 근본주의의 특징을 신학적으로 파악한 후 이러한 신학적 특징이 보수 교회의 극우화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을 사회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II. 기독교 근본주의의 특징

1. 전근대적 종교 전통에 대한 집착

기독교 근본주의의 극단적인 배타주의는 전근대적 종교 전통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대적인 기독교 근본주의의 기원은 19세기 말 천년 왕국설과 함께 부상하였던 미국 내 보수적인 개신교 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운동은 노동 불안, 가톨릭 이민자의 증가, 성서 비평에 위협을 느낀 미국 사회 내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을 중심으로 18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점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성서에 대한 문자적 이해, 임박한 예수의 재림, 동정녀 탄생, 부활, 속죄 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신학적 운동으로서 '근본주의'라는 용어는 1910년에서 1950년 사이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에서 발행된 「근본: 진리를 향한 증언」(*The Fundamentals: A Testimony to the Truth*)에 의해 정립되었다. 이 잡지는 당시 과학적 발전, 근대주의와 다원적 문화를 반대하는 짧은 논문들과 평론들을 수록하였는데 '다섯 가지의 기독교 교리들'(성서 무오영감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속죄, 부활, 기적적인 능력)과 문자주의가 결합된 미국 내 근본주의 체계를 형성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문자주의적 성서 이해를 고집하는 이들은 성서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이 성서가 가르치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거나 전부라고 주장한다. 신학적으로 이처럼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사람들은 종교적 다양성에 의해 제기되는 복잡한 이슈들에 대해 고심하지 않고 무시한다.⁶⁾ 기독교 근본주의의 신학적 기반이 되는 성서 문자주의는 계몽주의 이후의 근대화와의 세속화를 거부하는데, 이는 전근대적인 종교 전통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통에 대한 집착은 결국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을 개인적이고 내세적인 구원으로 전환하려는 '구원론적 환원주의'(soteriological reductionism)로 빠질 수밖에 없다. 선교적 차원에서 이를 긍정하더라도 공적 영역의 문제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성서의 가르침을 단순화하거나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⁷⁾ 1920년대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자 존 그레삼 메이첸(John Gresham Machen, 1881-1937년)은 근대 이후의 신학적 발전을 "현대의 비구속적 종교"로의 전환이라고 비판한 후 이를 "현대주의"(modernism) 혹은 "자유주의"(liberalism)라고 규정하였다. 메이첸에 따르면, 기독교는 "위대한 구속의 종교"이다.⁸⁾ 이러한 인식체계는 구원에 대한 담론만이 기독교적 가르침이며 기독교의 다른 가르침들에 대한 현대적 담론은 구속의 교리를 약화시키고 세속화를 촉진하는 반(反)기독교적 경향일 뿐이다. 리처드 니버(H. Richard

6) Kimball, *When Religion becomes Evil*, 216.

7) Darrell L. Guder, "Ecclesiology and Witness," in *The T&T Clark Handbook of Ecclesiology*, ed. Kimlyn J. Bender & D. Stephen Long, (London, New York: T&T Clark, 2020), 449-462 중 454.

8) John Gresham Machen, *Christianity and Liberalism* (Charleston SC: BiblioLife, 2009), 2.

Niebuhr, 1894-1962년)는 미국 내 이러한 신학적 흐름을 “강경한 근본주의”(strength Fundamentalism)라고 표현하였다.⁹⁾ 강경한 근본주의를 신봉하는 이들은 구원론에 대한 강조가 성서적 가르침의 전부이며 이는 지극히 신학적 관심에서 나온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 강경한 근본주의는 미국 내 농촌문화와 도시문화 사이의 갈등이라는 문화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다.

세계대전 이후 농업적 가치가 침체하면서 농업에 의존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미국사회의 세속화를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강경한 근본주의가 부상하였던 것이다. 강경한 근본주의는 미국의 도시 지역과 산업화 지역에서는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한 반면, 많은 농촌 지역의 주들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강경한 근본주의자들은 근대시민사회의 등장 이전에 형성된 전근대적인 기독교 전통을 신앙의 뿌리로 여기며 집착하였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강조했지만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중세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들 자신의 특별한 형태의 경건성과 신앙이 지배적이었던 황금기”는 세속화 이전, 즉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근대 시민사회 이전이었기 때문이다.¹⁰⁾

미국의 강경한 근본주의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근본주의자들이 유교적 기반의 전통적 가치체계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고 1987년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부정하고 군사독재시대를 미화하는 모순적인 현상은 미국의 강경한 근본주의의 영향력을 잘 보여준다. 1860년 야곱 부르크하르트(Jacob Burckhardt)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대 사회의 출발점이 되었던 르네상스(Renaissance)는 근대적 개인과 근대적 주체를 발전시켰다.¹¹⁾ 1944년 『계몽의 변증법: 철학적 단상』에서 막스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와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W. Adorno)는 이러한 변화를 근대적 주체에 의해 자연이 단순한 객체로 전락하였고 지배의 토대로서 하나의 물건으로 치부되었다고 비판하였다.¹²⁾ 비판이론(Kritische Theorie)의 현대 문명 비판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판이론이 추구하였던 근대성의 해체가 중세 혹은 고대 세계관으로 회귀는 아니었다. 종교가 현실의 왜곡된 문화와 가치체계를 비판하는 이유는 보다 나은 대안적 가치체계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지 구시대적인 혹은 특정한 시대에 형성된 교리 체계를 현대에 무조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종교의 퇴보 현상은 현실에 대한 종교적 비판이 대안적 가치체계의 제안이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될 때 발생한다.

2. 분리주의적 강박관념

전근대적 종교 전통에 대한 집착은 세속화된 세상(혹은 문화)에 대한 분리주의적 강박관념을 자극했다. 미국의 강경한 근본주의자들은 세속화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보다는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분리주의적 강박관념”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확립했다.¹³⁾ 분리주의적 강박관념은 미국 내 초기 근본주의운동의 ‘종교적 게토화’(religious ghettoization)를 촉진하였다. 이러한 퇴행적 의식은 결국 ‘세상의 소금과 빛’(마 5:13-16)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훼손함에도 문자주의

9) H. Richard Niebuhr, “Fundamentalism,”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 vol VI (New York: Macmillan Publishers, 1937): 527.

10) 닐스 C. 닐슨/한귀란 옮김, 『종교 근본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글로벌콘텐츠, 2012), 19.

11) Jacob Burckhardt, *Die Kultur der Renaissance in Italien* (Berlin: Deutsche Buch-Gemeinschaft, 1936), 127.

12) Max Horkheimer & Theodor W. Adorno, *Dialektik der Aufklärung. Philosophische Fragmente* (Frankfurt a. M.: S. Fischer Verlag, 1998), 15.

13) 배덕만, 『한국개신교근본주의』 (논산: 대장간, 2010), 18, 25.

적 성서 해석을 통해 정당화되었다. 미국 내 문자주의의 문제는 이미 1925년 '스코프스 재판'(Scopes Trial)에서 잘 드러났다.¹⁴⁾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던 존 스코프스(John T. Scopes)는 비록 패소했지만 결과적으로 근본주의자들의 '창조론'(creationism)이 미국사회에서 영향력을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근본주의자들의 현대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분리주의적 강박관념을 더욱 강화하였다.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을 1930년대 이전에는 '비순응주의자'(Nonconformist)로, 1930년 이후에는 '분리주의자'라고 부르게 된 이유도 스코프스 재판 이후 분리주의적 강박관념이 근본주의운동의 특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¹⁵⁾

이처럼 분리주의적 강박관념으로 인해 교회의 게토화는 일반적으로 근본주의운동 초기에 나타난다. 근대성을 거부하는 근본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정치권력이나 사회적 헤게모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 근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가치체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을 배척함으로써 자신들만의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려하기에 강한 폐쇄성을 보인다. 이러한 폐쇄성은 성(聖)과 속(俗)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이원론적 세계관과 사회적 책임의식 혹은 윤리의식의 약화, 영적 가치에 대한 집착 등을 강화한다. 미국의 강경한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근본주의자들이 1970-80년대 외적으로 엄격한 정교분리와 극단적인 성숙이원론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3. 반대자 혹은 비판자에 대한 공격성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전근대적 종교적 전통에 기반 해 교회나 종교적 영역뿐 아니라 현실사회 혹은 현실정치를 평가하려는 '종교적 도덕주의'(religious moralism)의 경향을 보인다. 종교적 도덕주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공격성을 표출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19세기 중반부터 불어 닥친 미국사회의 근대화 와 세속화의 바람은 그리스도인들 내에 미래에 대한 비판적 관념을 확산시켰고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적 신앙을 보수해야 한다는 "전투적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다.¹⁶⁾ 이러한 강박관념이 초기에는 기독교 근본주의 교회의 게토화를 부추겼다. 하지만 이후 사회 병리적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회가 불안해지거나 전반적으로 보수화될 때 근본주의자들은 정치적 영역에서 우파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주류적 세력으로 부상하였다.¹⁷⁾ 미국의 경우, 기독교 근본주의는 우파 세력의 정치적 기반이다.¹⁸⁾ 근본주의자들의 종교적 도덕주의가 정치적 도덕주의(political moralism)로 확장될 때 극우 세력과의 결합이 더욱 강화되고 폭력적인 공격성이 빈번하게 표출된다.

근본주의자들은 근대성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역에서도 근본주의적 가치에 기반 한 종교적 도덕주의를 수용하지 않는 이들을 "적대적 타자"로 규정한다.¹⁹⁾ 이를 통해 적대적 타자에 대한 공격성이 종교적으로 정당화된다. 사회적 주류가 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차별과 억압의 기제를 통해 사회-종교적 다양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더구나 우파적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권력을 획득할 경우, 적대적 타자로서 반대자나 비판자에 대한 물리적 폭력은 공권력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권력이나 헤게모니를 획득한 기독교 근본주의는 근본주의 운동의 초기 단계와 달리 전근대적인 종교적 전통들을 비(非)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강요한다. 20세기에 기독교 근본주의와 파

14) Ronald L. Numbers, *The Creationists: The Evolution of Scientific Creation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993), 44.

15) 강학순, 『근본주의의 유혹과 야만성: 현대철학에 그 길을 묻다』 (서울: 미다스북스, 2015), 41.

16) 배덕만, 『한국개신교근본주의』, 20.

17) 닐슨, 『종교 근본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18-19.

18) Wilfried Röhrich, *Die Macht der Religionen. Glaubenskonflikte in der Weltpolitik* (München: Verlag C. H. Beck, 2004), 59.

19) 강학순, 『근본주의의 유혹과 야만성』, 35.

시즘이 결탁하여 형성되었던 기독교 파시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종교적 근본주의(혹은 원리주의)가 군사력을 가진 극우 정치세력과 결탁할 경우 전쟁이나 테러리즘과 같은 극단적인 폭력성을 표출한다.²⁰⁾ 군사독재세력과의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서 성장한 한국교회가 민주적 다양성(democratic plurality)을 부정하는 극우정치세력과 쉽게 결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극단주의 세력과 결탁한 극우적인 근본주의는 강한 가부장적 성향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기독교 근본주의와 극우 정치세력이 결탁한 기독교 우파는 근대사회의 질서를 거부하고 전통적인 미국적 신앙양식을 강조했으며 세속화의 흐름에 대항하여 순수한 개신교의 가치를 지키려 하였다. 이러한 욕망은 사회 병리적 현상과 함께 보수화되면 전근대적 종교 전통에 적합하게 사회적 현실을 강제로 바꾸려는 하였다. 자신들의 신념 체계를 절대적 진리 혹은 절대 선이라고 가르치는 기독교 근본주의신학은 필연적으로 반대자나 비판자에 대한 공격성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독재 초기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성숙이원론에 기반 하여 정치와 종교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독재에 협력함으로써 사회적 헤게모니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군사독재가 길어지고 사회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국 사회가 점차 폐쇄적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왜곡 속에서 기독교 근본주의는 사회적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군사독재세력과 결탁하였고 개발독재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였다. 그들은 군사독재세력에 대한 비판을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낙인을 찍었고 권위주의적 가치를 기독교적인 것으로 둔갑시켰다.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였던 이들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고 군사독재세력에 저항하는 이들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미화한 결과, 기독교 근본주의교회들은 군사독재의 지원으로 양적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였다.

4. 가부장적 권위주의(Patriarchal Authoritarianism)

권위주의는 기독교 근본주의의 주요한 특징이다. 권위주의는 권위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킨다. 물론 성서는 권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서가 말하는 권위는 단순히 "지배 서열"(pecking order)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한 권위, 즉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능의 권위"(authority of function)를 말하고 있다.²¹⁾ 그러므로 진정한 권위는 위계적 질서 속에서 강요되는 지도자에 대한 일방적 복종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부인을 기반으로 한 상호 섬김을 위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해야 할 교회의 권위는 바로 이것이다(고전 16:16; 히 13:17).

2016년 촛불혁명 이후 한국 사회에서 권위주의는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여전히 권위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현재 한국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병리적 현상들 - 교회의 사유화와 세습, 성인지 감수성(性認知感受性) 혹은 젠더 감수성(Gender sensitization)의 현저한 저하, 수직적 위계 구조, 성도에 대한 착취와 학대 등 - 은 권위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내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권위주의를 해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독교 근본주의의 특징은 권위주의에 대한 강박적 집착과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종교 심리학적 측면에서 근본주의적 종교의식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정통주의 신앙'에 대한 극단적인 욕구인데, 이러한 욕구는 권위주의로 표출되기 때문이다.²²⁾ 개발독재시기에 한국교회의 주류로 자리 잡

20) Röhrich, *Die Macht der Religionen*, 12.

21) Richard J. Foster, *Celebration of Discipline: The Path to Spiritual Growth*, 20th Anniversary Edition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98), 127.

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신앙 체계를 정통주의(orthodoxy)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근본주의와 전통적인 의미의 정통주의는 분명하게 다르다.²³⁾ 사전적 의미로 근본주의는 “과거의 사건들, 텍스트들, 권위 있는 인물들에게 호소하고 특정한 집단을 보호하는 다양한 교리, 이야기 또는 법률을 미래에 투영하는 현대 종교 운동”을 의미한다. 또한 그 집단은 “그 운동에 헌신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돕지만 집단 외부 사람들에 대해 다소 공격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 경향을 보인다.²⁴⁾ 또한 근본주의는 어떤 사상이나 원칙 혹은 이념에 대한 엄격한 복종과 신앙적 고수를 강조하며 “종교적 신앙, 도덕적 이념, 정치적 신념, 이데올로기적 강령의 뿌리를 수호하고 방어하려는 태도”를 포함한다.²⁵⁾ 그러므로 근본주의는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고 주장하는 바를 타인에게 설득시키기 보다는 종교적 권위에 의해 복종시키려 하기에 타자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권위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5. 신성화된 자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는 세속적인 경제체제인 자본주의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한다. 이러한 가치전도현상은 경제적 풍요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자본을 주물화하는 종교 중독의 특징과 유사하다. 이러한 기독교 근본주의의 가치전도현상을 ‘신성화된 자본주의’(sanctified capitalism)라고 부른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근대적인 경제 체제로서 자본주의를 거의 종교적 가르침과 같이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 경제체제가 종교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신성화된 자본주의 속에서 자본의 이익은 인간의 가치보다 우선하며 종교적 권위에 의해 모든 사회적 가치는 자본의 가치로 획일화된다. 더구나 신성화된 자본주의의 추종자들은 현실 자본주의체제를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공격성을 표출한다. 이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악의 근원으로서 돈에 비판과 연결된다.

한국교회는 신성화된 자본주의에 익숙하다. 왜냐하면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교회의 성장은 개발독재 이데올로기와 변영신학이 결합한 신성화된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군사독재세력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불가결하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크게 제한하였다. 개발 이데올로기는 ‘경제적 성장’이라는 환상을 통해 시민들을 통제하며 독재를 정당화하였다. 모든 사회적 가치는 개발과 자본의 논리에 적합하게 획일화되었고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들은 극심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해야 했다. 권위주의적 사회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풍요를 제외한 모든 사회적 욕구(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를 금지 대상으로 전략시킴으로써 경제적 성공에 대한 강력한 집착은 강화되었다. 하지만 성공에 대한 사회적 강박은 경쟁을 격화시켰고 개발독재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집단 외상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심화되었다. 더구나 ‘성공한 소수’의 우월감과 ‘실패한 다수’의 열등감은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건강한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외상과 현실 도피 욕구로 인해 변질된 욕망은 권위주의적인 사회체제가 강화될수록 현실을 왜곡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망상과 허상을 필요로 했다. 이에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미국의 변영신학과 한국의 개발독재 이데올로기를 결합시켜 한국적인 변영신학을 만들어 냈다. 변영신학을 받아들인 한국교회는 자본주의를 신성한 체계로 변질시키고 사회적 성공과 물질적 풍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르쳤다. 현실 도피 욕구와 현실의 의도적인 왜곡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은 한국식 변영

22) 메리 조 메도우, 리처드 D. 카호/최준식 역, 『종교심리학 하』 (서울: 민족사, 1994), 346.

23) 닐슨, 『종교 근본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14.

24) Marin E. Marty, “Fundamentalism,”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olitical Science*, vol. 3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2011): 934-939 중 934.

25) 강학순, 『근본주의의 유혹과 야만성』, 37.

신학에 열광하였고 한국교회는 앞 다투어 이런 흐름을 쫓아갔다. 신성화된 자본주의와 이를 정당화하는 변영신학은 일종의 이상숭배와 그 이상숭배를 부추기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근본주의적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를 '기독교적인 것'으로 둔갑시켰다.

III. 한국교회 내 기독교 근본주의의 문제

1. 극단적인 배타주의와 편집증적 반공주의

오늘날 한국교회 내 기독교 근본주의의 문제를 다룰 때 우선적으로 논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극단적인 배타주의이다. 극단적인 배타주의는 이후에 다룰 모든 한국교회 내 근본주의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물론 종교의 일반적인 특징 상 특정한 종교적 가르침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일정 부분 타종교에 대해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느 종교든지 보편적 인류애에 대한 가르침이 없이는 막스 베버(Max Weber)가 언급한 '세계 종교'(Weltreligion)로 발전하기가 어렵다.²⁶⁾ 종교가 건강할 경우 보편적 인류애에 대한 가르침이 종교적 배타주의를 제어한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종교적 배타주의는 공격성이나 폭력성으로 표출되며 일반적으로 문자주의(Literalism)에 의해 정당화된다. 기독교 근본주의의 극단적인 배타주의는 전근대적 종교 전통에 대한 집착과 분리주의적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을 통해 강화된 분단폭력이 정당화되지 않았다면 한국 사회에서 근본주의자들의 극단적인 배타주의가 종교적 영역뿐 아니라 정치적 영역에까지 광범위하게 표출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한국교회의 극우화에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분단폭력은 바로 '편집증적 반공주의'(Paranoid Anti-Communism)이다. 편집증적 반공주의란 공산주의에 대한 극단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현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표현만으로 근거도 없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공산주의자' 혹은 '공산주의 추종 집단'(소위 '종북')으로 몰아가는 사회 병리적 현상을 지칭한다. 1940년대 후반 서북청년단의 만행은 근본주의와 편집증적 반공주의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극단적인 폭력성과 사회적 부작용을 잘 보여준다.²⁷⁾ 또한 과거 한국 사회에서 군사독재에 협력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을 향해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어 배척하였던 잘못도 전형적인 편집증적 반공주의의 부작용이었다.

해방 공간에서 심화되었던 좌우의 이념적 갈등은 남한 사회에 편집증적 반공주의가 형성되기 좋은 토양을 만들었고 한국전쟁은 이를 심화시켰다. 한국의 근대사에서 편집증적 반공주의는 수없이 많은 사회·정치적 문제를 양산하였다. 특히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 저항이 고조될 때마다 간첩 사건을 조작하여 매스미디어를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이는 남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저항세력의 배후에 좌익 용공분자들이 있다는 허상을 심어주었다.²⁸⁾ 물론 편집증적 반공주의는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1950-1954년에 미국 전역을 휩쓴 조지프 매카시(Joseph R. McCarthy, 1908-1957년) 상원의원에 의한 공산주의자 색출 열풍, 즉 매카시즘(McCarthyism)은 미국 사회의 편집증적 반공주의가 가진 문제점을 과감 없이 보여주었다. 매카시즘이라는 용어는 오늘날에도 "불공정한 혐의, 공포 전략, 풍

26) Max Weber,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vol 1, 9th ed. (Tübingen: J. C. B. Mohr [Paul Siebeck], 1988), 237-240.

27) 서북청년단의 만행은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집단 외상을 입은 이들이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극우 정치세력의 편집증적 반공주의에 동의함으로써 발생한 역사적 비극이다. 집단 트라우마(collective trauma) 혹은 사회적 트라우마(social trauma)가 극단주의 정치운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필자의 『종교 중독과 기독교 파시즘』(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을 참조하라.

28)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5·16에서 10·26까지』(서울: 역사비평사, 2014), 70.

자 및 협회(나 조직)에 의한 선정적인 위협에 근거하여 비난하는 조직적인 운동”을 지시하는 사회적 용어로 사용될 정도로 미국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다.²⁹⁾ 매카시즘과 편집증적 반공주의는 현대적으로 변형된 마녀사냥과 그 이데올로기였다.

비교적 정치 이데올로기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자유로웠던 한국교회가 한국전쟁 이후 적극적으로 반공주의를 외치는 군사독재세력과 쉽게 결탁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북한의 공산주의체제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에게 남한의 자본주의체제는 하나님을 믿는 남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결과였다. 그러므로 북한의 공산주의체제는 이를 무너뜨리는 악한 사탄의 체제로 인식되었다.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은 이처럼 근본주의자들의 가치전도현상을 가속화하였고 이들은 개발독재 세력에 의해 강요된 편집증적 반공주의를 변형신학을 통해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 이러한 왜곡은 반대자 혹은 비판자에 대한 공격성을 정당화하는 근본주의의 특징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2. 젠더 차별의 정당화

※ 한국교회 내 가부장제의 문제는 여성 차별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젠더 차별’(gender discrimination)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본 글의 양적 한계로 인해 여성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하겠다.

한국교회에 깊이 박혀 있는 가부장제는 한국교회의 극우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가부장제는 단순한 가족체계이기 보다는 하나의 세계관이기에 권위주의(Authoritarianism)를 비롯한 다양한 부정적 가치관과 쉽게 결합한다.³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전적 파시즘(Classical Fascism)의 권위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³¹⁾ 권위주의적 가부장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들은 필연적으로 극우적인 정치사상으로 이어진다.

한국 사회는 유교문화의 부정적인 영향력과 일제식민지시기와 군사독재시기를 거치며 군사문화와 결합된 권위주의와 가부장제를 내재화하였다.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신봉하는 근본주의자들은 남성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여성 차별을 정당화하였다. 이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고대의 강력한 가부장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가부장적 교회 체제를 쉽게 정당화하였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황제숭배와 노예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로마 제국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21세기에 왕정과 노예 제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고대 문화의 한계로 인해 정당화된 가부장제를 오늘날과 같은 성(性)평등의 시대에 아무런 해석의 과정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자주의의 모순일 뿐이다.

한국교회 내 근본주의자들은 권위주의적 가부장제에 익숙하기에 군국주의나 군사문화에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정당화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는 극단주의 정치 운동의 내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교회 내 극우화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성 차별 혹은 젠더 차별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기제를 해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³²⁾ 과거 창세기 1장 28절의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자연에 대한

29) David H. Price, “McCarthyism,”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5, 2nd ed. (Detroit: Macmillan Reference USA, 2008), 43-44 중 43.

30) Jürgen Moltmann, “Der Befreiung der Unterdrückter,” *Ev.Th.* 38(1978): 527-538 중 529-530.

31) Henri Michel. *Les Fascisme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79). 10.

32) 여성신학의 발전에도 필자는 한국교회 내 군국주의 혹은 군사주의와 결합한 권위주의적이며 가부장적인 모순들을 종종 경험한다. 근본주의자들은 여성을 “약한 성별”로서 과소평가하기에 “여성적” 특

착취와 다른 문화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는 가르침으로 오용되었다. 하지만 21세기 이러한 제국주의 시대의 성서해석은 심각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근본주의자들의 문자주의적 성서 이해는 한국교회 내 성평등의식과 성인지감수성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측면에서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극우화라는 측면에서도 비판받아야 한다.

3. 번영신학의 범람

한국교회 내 편집증적 반공주의는 개발독재의 산물이다. 70-80년대 개발독재 이데올로기는 한국교회 내 번영신학(Prosperity Theology)의 범람을 가져왔고 이는 한국교회의 극우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한국교회 내 번영신학과 극우화의 상관관계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 첫째, 한국교회 내 번영신학은 미국의 번영신학과 개발독재 이데올로기가 결합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내 번영신학의 범람은 극우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당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고통 받는 사람들을 이용해 부자가 되려 하는 번영신학의 추종자들이 선포하는 변질된 복음은 경제적인 약자와 빈자를 좌악시하는데,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파시즘과 같은 극우적인 이데올로기가 활개를 친다.³³⁾ 미국의 번영신학은 세속적인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를 기독교적인 체제라고 가르친다. 바로 여기서 미국의 번영신학에 내재된 ‘신성화된 자본주의’(sanctified capitalism)의 문제가 도출된다.

물론 기독교와 자본주의 사이의 상관관계는 신학과 사회학에서 많이 다루어진 주제이다.³⁴⁾ 하지만 미국신학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보수 교회들은 신성화된 자본주의의 문제를 외면한 채 초기 청교도적 전통과의 연관성 속에서 번영신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에만 관심을 집중했다. 현재 한국에 수입된 미국의 번영신학은 기독교 근본주의와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으로 상징되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결합된 형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³⁵⁾ 이를 외면할 경우, 부의 축적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극

성들에 대해 필연적으로 저평가하고 여성이 남성과 같이 공동체적 삶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배제한다. 사실 하나님은 남성이나 여성으로 고착화되지 않는다. 구약성서는 하나님을 남성적 특성들뿐 아니라 여성적 특성들을 통해서도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주의자들은 근대사회의 등장 이후에도 십계명을 비롯하여 구약의 일부 기록들을 통해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 혹은 남성에게 의해 지배되어야 한 존재로 규정한다. 오늘날 한국교회 내 근본주의에 경도된 목사들은 남성과 여성의 동일한 가치를 주장하는 창세기의 기록보다는 여성이 두 번째로 창조되었고 첫 번째로 죄를 지었다는 부분에만 집중한다. 특히 창세기 3장 16절의 기록은 여성이 형벌로서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아야 하고”, “남편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하고” 남성에게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근본주의자들은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남성 목회자를 돕는 조력자의 역할로 제한하며 지도적인 역할을 부정하고 여성에게 사회적 권위를 주는 것을 비도덕적이라고 가르치고 남성에게 강력한 사회적 권위를 부여하며 여성을 일방적으로 남성에게 종속시킨다. 가부장제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은 독립적인 인격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남성적 권위에 의존해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다. 가부장제적 사유체계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아내’, ‘어머니’ 혹은 ‘주부’와 같이 가족 내로 제한된다. 여성의 주도적 역할은 부정되고 여성의 역할은 ‘남성을 지원하는 일’로 제한된다. 근본주의자들은 여성이 이를 거부하거나 그 역할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신랄한 도덕적·윤리적 비난이 가한다.

33) Hedges, *American Fascists*, 133, 181.

34)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과 같이 자본주의를 하나의 종교로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개혁시대의 기독교는 근대를 거치면서 자본주의로 변형된 것이다. Walter Benjamin, “Kapitalismus als Religion,” in *Gesammelte Schriften*, vol. IV (Frankfurt a. M.: Suhrkamp Verlag, 1985): 100-103 중 100, 102. 베버가 자신의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1905년)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초기 개신교적 전통과 근대 자본주의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도 있다. 물론 필자는 칼뱅주의의 경제 윤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세계내적 금욕주의”(innerweltliche Askese)는 많은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하여 Weber,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I*, 115-117를 참조하라.

우적 이데올로기와 쉽게 결합하는 변영신학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사실 변영신학은 극우 이데올로기와의 결합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자본주의 논리의 일부분을 일반화하고 이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한다는 측면에서 자본의 주물화(呪物化)로서 비판받아야 한다. 과거 변영신학이 경제적 차별을 정당화하고 극우 정치세력의 팽창정책과 제국주의적 경향을 '선교'라는 미명으로 정당화한 오류는 일종의 주물숭배(呪物崇拜)현상으로서 접근해야 한다.

IV. 나가는 말

기독교 근본주의는 전근대적 전통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근대성을 거부하는 왜곡된 심리에서 발생했기에 이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할수록 종교 병리적 현상은 심화된다. 근본주의자들에게 현대 사회의 가치는 기독교 신앙과 대립하는 것이며 기독교적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사악한 계략일 뿐이다.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권위주의와 차별 기제를 강화하며 종교적 배타주의를 공적 영역에서 공공연하게 표출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초기에는 분리주의적 강박관념으로 나타나지만 사회적 혼란이 심해지면서 사회적 헤게모니나 정치적 권력에 가까워지면 비판자(혹은 반대자)에 대한 공격성으로 표출된다.³⁶⁾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 근본주의자들은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극단주의 정치 운동에 쉽게 매력을 느낀다. 그러므로 근본주의자들이 군사력을 가진 극우적인 정치세력과 결탁할 경우 파시스트 운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한국교회가 근본주의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 보수 교회의 극우화를 걱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극우적인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정치세력화를 추구하고 있는 근본주의의 기반이 되는 권위주의와 차별 기제를 비판하고 해체하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없이 '힐링'(healing)과 치유라는 명목으로 성도들의 개인주의적이고 심리적인 욕구에만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진정한 힐링(혹은 총체적 힐링)은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문제까지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³⁷⁾ 개인주의적 힐링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심리주의의 함몰된 현실을 보여준다.

팬데믹의 시대에 한국교회는 몰락의 위기에 서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시민사회가 편집증적 공산주의를 넘어 진정한 민주주의로, 군사문화를 넘어 민주적 다양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반해, 한국교회는 - 특히 한국의 보수 교회는 - 심리적 안정감과 개인 윤리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양적 성장에 대한 집착과 왜곡된 가치관으로 젠더 차별, 교회 세습과 사유화의 문제 등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이 계속 이어진다면 한국 (보수) 교회의 극우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이제라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이들이 연대하여 기독교 근본주의와 정치적 극단주의와의 결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대적(벧전 5:8) 앞에서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할 때이다.

35) William E. Connolly, *Capitalism and Christianity, American Style*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8), 39-40.

36) 모든 종류의 근본주의 혹은 원리주의 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이들은 사회가 건강하여 개방성과 다양성을 유지할 때는 폐쇄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소수의 종교 운동으로 머물지만 사회 병리적 현상이 심해지면서 불안이 가중되면 정치적 권력이나 사회적 헤게모니를 획득한다.

37) Dennis Sullivan & Larry Tifft, "Introduction: The healing dimens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The Handbook of Restorative Justice: A Global Perspective* (Oxon, New York: Routledge, 2006), 1.

하상응, 미국 백인 복음주의 유권자는 왜 트럼프를 지지하였나?

하홍규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이 글의 제목은 연구 질문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의 연구 질문이 좀 더 세밀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16년 선거에서 백인 복음주의 유권자들 가운데 지지 정당을 바꾼 사람들이 늘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원래 공화당을 지지하던 사람들 가운데 투표에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인가요? 누구나 주지하듯이, 미국의 선거는 언제나 몇 개의 경합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 글도 당연히 2016년 선거에서 1980년대 이후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민주당의 패배가 트럼프 승리를 가져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전 선거와는 달리 많은 유권자들이 지지 정당을 바꾸었다고 볼 수도 있을테고, 그렇다면 질문은 그들은 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바꾸었는가 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경합주들에서 원래 공화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투표장에 더 많이 나오게 된 것이라면, 그 이유를 찾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가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0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Blue Wall에서 다시 이기게 된 이유를 찾기 위해서 도 저는 질문이 명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5쪽에 보면 “미국 정치에서 공화당(혹은 트럼프) 지지자의 특징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트럼프의 등장과 포퓰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지지와 트럼프 지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글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은 원래 공화당 지지들인데 공화당과 트럼프 현상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 글의 제목을 백인 복음주의 유권자들은 왜 계속해서 공화당만 지지하는가로 바꾸어도 무방해 보입니다. 더구나 그렇다면 트럼프 지지 현상은 포퓰리즘도 아니겠지요.
- 6쪽에서 트럼프의 윤리적인 흠결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보낸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인종 차별, 여성과의 스캔들, 사업 관련 사기 등은 복음주의자들에게는 그다지 비윤리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이 이슈들은 복음주의자들이 한없이 용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글에서 인용된 제임스 돕슨의 입장 변화도 종교에 바탕을 둔 윤리적인 이슈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돕슨이 빌 클린턴을 비판한 것은 그가 민주당이기 때문이고, 트럼프를 지지한 것은 그가 공화당이기 때문입니다. 돕슨이 댄 이유는 정당화의 논리에 불과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이 트럼프와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종교 보다는 정치에 있다”는 하 교수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철저히 지킬 뿐만 아니라 남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윤리적 기준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윤리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신비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트럼프의 것과 동일한 윤리적 문제를 갖고 있는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섬겨온 경험이 있습니다.
- 이 글이 질문하는 “미국 백인 복음주의 유권자는 왜 트럼프를 지지하였나?”에 대한 해답으로 하교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지위 위협’이라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위 위협을 갖게 된 원인은 인구 구성의 변화, 경제적 쇠락, 오바마 시기 문화적 차원의 진보적 움직임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위 위협을 느끼는 집단은 백인, 개신교, 고졸, 남부 시골 지역 거주자들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지위 위협을 느끼는 집단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위 위협을 느끼는 이들 가운데 반드시 복음주의 신자는 아닐지라도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집단들도 많을 것입니다. 더구나 2016년 선거에서 중요했던 것은 러스트 벨트에서의 결과였는데, 러스트 벨트는 남부도 아니고 더구나 시골 지역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러스트 벨트에서의 트럼프 지지를 이끌었던 것도 복음주의자들이었는가요? 그래서 미국 백인 복음주의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로서 지위 위협과 그리고 지위 위협의 원인을 나열한 것으로는 정밀한 분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끝으로 한 가지 글의 주제와는 관계없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소수 인종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더 지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글의 목적과는 다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왜 그런지는 좀 궁금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 이민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궁금했었는데, 허상응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글에서도 밝혔듯이, 인종별 인구 구성의 역전 현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미국 정치의 방향에 대해서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고 봅니다.

극우의 과잉대표? 그렇다면 복음주의는 정말 우리의 대안적 대표가 될 수 있을까?

김혜령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토론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얼마 후, SNS에 이번 대화모임의 포스터에 달린 댓글들을 보게되었습니다. 한국의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기관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에큐메니컬 운동을 대표하는 기관인 크리스찬아카데미의 협업을 의미있게 평가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집단을 - 그 대표성의 과잉됨을 아무리 지적하려는 의도라 할지라도 - “극우 개신교”라고 전제한 전체 주제에 대해 비난하는 이들과 상당히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 대화 모임의 주제 “극우 개신교는 어떻게 기독교를 과잉대표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이 토론을 준비하며 찾아 본 자료 중에 이번 달 초에 출판된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정재영 외, 한국교회탐구센터·IVP)에 실린 정재영 교수의 “보수 개신교인의 내면세계”라는 논문이 수록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스스로를 보수 개신교인이라 자칭하며 (태극기 부대에 참여하거나 긍정적인 입장을 지닌 사람 중에서) 자신을 극우라고 확답하는 사람은 1/3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따로 실시한 태극기부대 참가자들의 면접 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모두 예외없이 ‘빨갱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재영, 66-67) 이는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 자신을 보수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지 않을뿐더러, 설혹 자신을 보수라고 인정하여도 ‘극우’로 불리는 것에는 동의하는 이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면접조사에서 보듯 이들은 실제로 ‘극우’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 민주인권 세력을 공산주의로 보는 반공주의를 상당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자의식과 실제 자의식의 재현으로서의 정치성향 사이의 이러한 괴리를 고려할 때, 이 토론회가 전제하는 “한국 기독교를 (과잉)대표하는 극우 개신교”라는 말에 왜 일부의 사람들이 불쾌한 심정을 표했는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보수이면서 보수인지 모르고, 극우이면서 극우인지 모르는 인지부조화의 상태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박성철 박사의 “보수교회의 극우화에 대한 복음주의적 진단과 대응”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한국 기독교의 극우화를 놓고 토론하기 위해 기초 작업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스스로를 보수인지, 극우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그것이 보수이며 극우인지 한번 짚은 분석하고,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 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박성철 박사가 집필한 『종교 중독과 기독교 파시즘』을 대학원 수업의 자료로 사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논문을 기대하며 읽었고, 기대한 바에 맞게 한국교회가 어떻게 미국교회의 영향을 받아 이미 극우적이며, 계속해서 극우화 되고 있다고 진단할 만한 판단 근거들(과거로의 회귀 & 근본주의, 분리주의 & 반공주의, 종교도덕주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 젠더차별, 자본주의 무분별 수용 & 번영신학)과 극우화의 배경과 역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자로서, 또한 토론의 상대방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1. 제목과 관련하여 든 생각입니다. 교회의 극우화를 복음주의적으로 진단하겠다고 제목에 밝혔는데, 극우화에 대한 진단은 진단의 관점이 특별히 복음주의자의 관점이 아니어도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에서 밝히신 ‘극우’의 특성은 자유주의 신학자가 보아도 충분히 동의할 내용이기엔, 제목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교회의 극우화에 대한 진단과 복음주의적 대응”. 그러나 이러한 제목으로 수정한다고 해도, 제목이 여전히 글의 내용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저자가 극우화 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상황을 진단할 근거는 제시하지만, 이에 대응하여 풀어야 할 만한 지향점이나 해결방식으로서의 ‘복음주의적 대응’ 의견을 실제로 제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글의 제목에서 계획한 박사님의 대응 전략을 토론을 통해 듣고 싶습니다.

2. 한국 보수교회의 극우화에 대한 비판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복음주의’라 밝히셨지만, 사실 이 글에는 복음주의에 대한 정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음주의’라는 말은 이미 너무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우선 한국말 ‘복음주의’는 영단어 Evangelism와 Evangelicalism의 번역어로 사용되는데 맥락상 두 단어는 같은 우리말로 번역되더라도 대부분 다르게 사용됩니다. 아마도 저자는 두 번째 영단어 Evangelicalism를 옆두에 두고 비판의 관점을 ‘복음주의’라고 밝히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 역시 교회사에서는 매우 복잡하게 서로 다른 교파들이나 교회들이 스스로를 ‘복음주의’(Evangelicalism)이라고 지칭하며 자기들이 더 ‘복음적’ 혹은 ‘복음주의적’이라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문적 인용으로는 부적절한 공유지식 사이트 위키백과는 ‘복음주의’에 대해 “모든 개신교 교단은 복음주의를 지향한다”라고 용감하게 ‘통쳐서’ 설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까칠하고 예민하게 저자가 취하는 ‘복음주의’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밝혀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사실 글 서두에서 밝혔던, 자신의 극우성을 극구 부인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보수성을 극구 부인하는 한국개신교인 대다수가 스스로를 ‘복음주의’라고 인식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아이러니입니다.

한국의 건강한 복음주의 신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느헤미야 기독교연구원>의 전임연구원인 배덕만 교수는 그의 최신 저작인 『복음주의 리포트』(대장간, 2020)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다양한 교파와 독일어 표현 방식(Evangelische, Pietismus, Evangelikal)의 다양성을 설명합니다. 그의 설명을 읽어보면, 한국에서 복음주의로 스스로를 지칭하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1) 유럽 ‘루터의 복음주의’에 영향을 받은 루터교회, 개혁신교회 등의 독일 개신교회(Evangelische Kirche)와는 거의 무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루터의 복음주의에 기반을 둔 독일과 유럽의 개신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가장 높게 보지만, 현대 성서비평학과 자연·사회과학에 적절히 반응하며 현대화된 종교로 발전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복음주의는 미국의 복음주의(2)와 신복음주의(3)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선 19세기 중반 이후 발전한 미국식 복음주의는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에 반하여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지성적’ 대응으로서, - 당대 미국 최고의 신학 지성인들에 의한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 성서무오설과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복음과 거리를 둔 근본주의 신학을 만들어 냅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3) 신복음주의에도 깊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운동은 대표적으로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를 통해 조직되어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최고의 부흥사에 의해 세력을 폭발적으로 확대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본주의적 복음주의처럼 자유주의를 경계하지만, 근본주의에 나타나는 분리주의나 반지성주의를 반대한다고 공식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식 복음주의자나 신복음주의자들 모두 ‘지성’을 앞세우면서도 공통적으로 근현대 성서비평학을 부인하고 성서무오설을 철저히 고수합니다. 현대 자연과학의 성과를 부인하며 최근 수 십년간 사이비과학인 ‘창조과학’을 발전·유통시키고, 낙태허용과 동성애 포용·총기사용 반대의 시민운동에 적극적인 반대세력을 정치적으로, 또 신학·교리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식 복음주의나 신복음주의 모두 겉으로는 지성운동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반지성주의’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¹⁾

1) 이것에 대한 분석은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의 김현준 연구원의 “복음주의는 반지성주의적 영

제가 복음주의에 대해 긴 설명을 덧붙이는 것은, 박성철 박사님이 극우적 기독교를 비판할 대척점이자 대안세력으로 제목에서 명시하고 있는 '복음주의'에 속하는 이들 대부분이 실제로 - 그들이 정말로 극우도 보수도 아니라, 중도 혹은 진보라고 스스로를 정체화 한 이들이라고 해도 - 거의 대부분 성경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신학적 작업을 두렵거나 불경하게 생각하고,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과학'을 더 많이 신뢰합니다. 낙태법 폐지를 태아에 대한 살인을 장려하는 일이라 확신하며 낙태법 반대서명에 이름을 올리고,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위배하는 타락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종교적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동의어이며, 정치적 자유는 오직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서만 지켜질 수 있다고 신봉합니다.

긴 설명을 통해 한마디로 제 생각을 다시 정리하자면, 한국교회의 극우화가 정말 문제라서, 극우화를 막기 위해 복음주의로 대응하려고 해도, 극우적 기독교인이나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이나 신앙의 내용 면에서, 신앙에 근거한 자연과학과 사회 질서에 대한 입장 면에서 크게 차별적이지 않다는 사실만 드러날 뿐입니다. 냉소적으로 과장하자면, 태극기집회에 나가느냐 안나가느냐 차이 정도라고 뼈뿔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교회 전체에 반지성주의가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반지성주의는 결국 근대와 현대문명을 따라잡지 못한, 한국교회의 전근대적 사고 수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피상적 복음주의를 강조하기보다, 아주 간단한 캠페인을 펼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대응이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예를 들어, 최소한 장로교 교단이나 감리교 교단 신학자들이,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의 신학자들이 합심하여 이미 대부분 마음 속으로 확신하고 있는 "성서무오설은 날조다!", "창조과학은 사이비 과학이다!", "성서 윤리로는 동성애나 낙태한 여성을 범죄화 할 수 없다!", "여성안수를 안 주는 것은 예수의 정신에 위배된다!" 등, 현대적 관점에서 당연히 주장될 뿐만 아니라 기본 수준으로 여겨져야 할 내용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함께 말하고 글을 쓰면 어떨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복음주의를 표방한 '반지성적 집단'에 의해 입에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더 정확히 겁에 질려, 혹은 귀찮은 것이 싫어 스스로 입에 족쇄를 달았습니다. 이 족쇄를 풀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의 이웃사랑 마음을 가슴에 담고 실천한다고 해도, 한국교회에 극우적 병폐는 계속해서 싹이 돋을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이 아니라, '지성'을 강조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성을 가졌는가?"를 볼 것.